12. 자연에 스미는 마음

詠井中月, 山中問答

복잡한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자연에서 평범한 이치와 삶의 지혜를 배우곤 한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 진리를 얻고,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고자 했던 시인의 정취를 감상해 보자.

詠井中月 _이규보

山僧貪月色하여　　幷汲一甁中이라.

到寺方應覺하리니　　甁傾月亦空을.

"대동시선"

새로 배울 한자

*詠 영 읊다　　*僧 승 중, 스님　　*幷 병 함께　　*汲 급 물 긷다　　*甁 병 병, 항아리

覺 각 깨닫다　　傾 경 기울다　　*棲 서 살다　　碧 벽 푸르다　　桃 도 복숭아

*杳 묘 아득하다

- 한시의 종류와 압운법을 알 수 있다.
- 자연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山中問答 _이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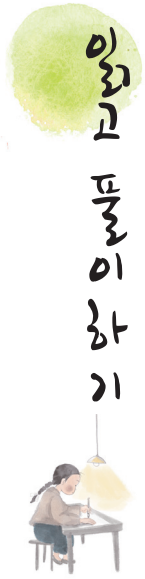
問余何意棲碧山고　　笑而不答心自閑이라.

桃花流水杳然去하니　　別有天地非人間이라.

"이태백문집"



이규보(李奎報, 1168~1241) 고려 중기의 문신·문인으로 명문장가로 칭송받음.
이백(李白, 701~762) 중국 당(唐)나라 시인. 자(字)는 태백(太白). '시선(詩仙)'이라고 불림.



*詠井中月

읊다, 노래하다 — 안, 속

우물 속 달을 노래하다.

*시의 형식: 오언 절구
운자(韻字): 中, 空

山僧 / 貪月色
탐하다
산속 스님이 달빛을 탐하여

幷汲 / 一甁中
함께 긷다 — 항아리 속

到寺 / 方應覺
바야흐로, 비로소

甁傾 / 月亦空
병이 기울면

*山中問答

산 속의 문답

*시의 형식: 칠언 절구
(※ 칠언고시로 보는 견해도 있음)
운자(韻字): 山, 閑, 間

무슨 뜻으로 ~ (느냐)?
問余何意 / 棲碧山
나(1인칭 대명사)

笑而不答 / 心自閑
~으며, ~고 — 저절로, 스스로

*自: ① 자기 自我(자아)
② **스스로(저절로)**
自然(자연)
③ ~부터
自初至終(자초지종)

桃花流水 / 杳然去
물에 흘러, 흐르는 물이 — 아득하게

別有天地 / 非人間
'人生世間'의 준말
→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의 세상

한시의 종류와 압운법

- 고체시: 고시(古詩)라고도 함. 근체시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지어진 시체를 말한다. 규칙이 비교적 자유롭다.
- 근체시: 당나라 때 성립된 시체로서 작품상의 규칙이 엄격한 시이다.

근체시의 형식

글자 수	구의 수	한시의 형식	명칭
5(五言)	4	절구	오언 절구
	8	율시	오언 율시
7(七言)	4	절구	칠언 절구
	8	율시	칠언 율시

압운법

압운법(押韻法)은 한시에서 특정한 구(句)의 끝자리를 운모(韻母)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압운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에도 달 수 있다.

생각 넓히기

한시를 그림으로 그려보기

'詠井中月'의 시적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山僧貪月色

幷汲一甁中

到寺方應覺

甁傾月亦空

인문학 더하기

문학은 왜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이백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한족(漢族)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그가 살았던 시대에서 주류가 될 수 없었기에, 자신이 꿈꾸던 세계에 대한 지향도 펼쳐 낼 수 없었다. 자신의 태생적 한계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백이 삶을 위로받고 귀의(歸依)할 수 있었던 공간은 오로지 자연뿐이었다. 생산력이 낮았던 8세기의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연은 무병장수의 평화로움과 풍요가 보장되는 무릉도원(武陵桃源) 정도로는 포장되어야 이백 자신도 폼이 좀 나고, 이상 실현의 좌절도 치유되지 않았겠는가? 반면 16세기 영국의 인문학자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Utopia)』라는 소설을 통해 근대적 이상향을 제시한다. 모어는 자신이 살던 절대주의 정치와 중상주의 경제의 부조화를 괴로워하였다. 그래서 신분이나 빈부의 격차 없이 하루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지적 탐구나 취미에 힘쓸 수 있는 평등하고 전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꾸었다.

이렇듯 문학가들은 자기 시대에 대한 반향(反響)을 반영하여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이상향으로 제시한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이육사나 이상화와 같은 저항 시인은 해방된 조국을 하나의 이상향으로 그렸고, 7~80년대를 살았던 김남주나 박노해 같은 시인들에겐 군사 독재가 청산되거나,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하나의 유토피아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들어서 물신주의에 가득 차 경쟁하는 인간의 욕망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현재, 문학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현실이 디스토피아로 펼쳐지기에 문학은 더욱더 절절한 마음으로 유토피아를 그려낼 것은 분명한 일이다.

※참고 도서: 『이백, 두보를 만나다』(다카시마 도시오 저 / 이원규 역)

어휘력 키우기



1 '人(亻)'이 들어간 한자

伴 반 짝 _ 伴奏 반주
伸 신 펴다 _ 伸縮 신축
健 건 튼튼하다 _ 健康 건강
偏 편 치우치다 _ 偏頗 편파
側 측 곁 _ 側面 측면
倣 방 본뜨다 _ 模倣 모방
佐 좌 돕다 _ 補佐 보좌
位 위 자리 _ 爵位 작위
侯 후 제후 _ 諸侯 제후

2 모양이 비슷한 한자

僧 승 중, 스님 _ 僧服 승복
曾 증 일찍이 _ 未曾有 미증유
憎 증 미워하다 _ 憎惡 증오
增 증 더하다, 늘리다 _ 增築 증축
贈 증 보내다, 주다 _ 寄贈 기증

到 도 이르다 _ 到着 도착
倒 도 넘어지다 _ 壓倒 압도
致 치 이루다 _ 理致 이치
侯 후 제후 _ 王侯將相 왕후장상
候 후 기후, 철, 조짐 _ 徵候 징후

3 학습 용어_환경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단어를 찾아보고, 풀이와 의미를 알아보자.

氣候危機

炭素中立　生態　環境破壞
再生　放射能汚染　地球溫暖化
生物多樣性　脫物質主義　持續可能性
核廢棄物　資源循環

새로 배울 한자

伴 **반** 짝
伸 **신** 펴다
縮 **축** 오그라들다
康 **강** 편안하다
偏 **편** 치우치다
頗 **파** 자못
側 **측** 곁
倣 **방** 본뜨다
模 **모** 법, 본뜨다
佐 **좌** 돕다
爵 **작** 벼슬
侯 **후** 제후
憎 **증** 미워하다
贈 **증** 주다
候 **후** 철

확인하기



[1~3]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山僧貪㉠月色　　幷汲一甁中.
　　到寺方應覺　　㉡甁傾月亦空.
(나) 問余㉢何意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

1. ㉠~㉤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달빛　② ㉡: 병이 기울다　③ ㉢: 무슨 일로
④ ㉣: 저절로 한가롭다　⑤ ㉤: 살구꽃

2. ㉮와 내용상 통할 수 있는 성어는?

① 漁父之利　② 雪上加霜　③ 武陵桃源
④ 桑田碧海　⑤ 背恩忘德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의 운자는 '色', '空'이다.
② (가)의 주된 정서는 '두려움'이다.
③ (가)에는 계절적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④ (나)는 칠언 율시(七言律詩)의 형식을 갖췄다.
⑤ (나)에는 시적 화자의 삶의 지향이 드러난다.

徵 **징** 부르다　機 **기** 틀, 때　態 **태** 모양　環 **환** 고리　境 **경** 지경
染 **염** 물들다　樣 **양** 모양　核 **핵** 씨　廢 **폐** 폐하다　棄 **기** 버리다
循 **순** 좇다